

‘추억의 7080 총장축제’ 개막



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제7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가 개막했다. 문화전당 특설무대에서 식선행사로 펼쳐진 '추억의 복고댄스' 공연에서 참가자들이 신나는 디스코를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광주발전연 '창조도시 광주' 난상토론

官 주도로는 창조도시 못 만들어
하향식 사고의 전환이 전제조건
시민들 자발적인 의견 담아내야

“창조도시를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창의성을 가미하는 것이겠죠.”

“위로부터의 지시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제안, 역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지에서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요?”

“다수의 시민 참여가 필수이며, 어떻게 다양한 의견을 담아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5일 오전 광주시청 세미나실에서 ‘창조도시, 과연 무엇인가’를 주제로 광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과 광주시청 5급 사무관 10여 명이 난상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은 민선 5기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시정 목표인 ‘창조도시’의 의미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은 물론 공직자마저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은 별도의 책자 없이 연구위원과 공직자들이 각각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이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인철 위원은 먼저 광주가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 선행해야 할 조건을 주장했다.

그는 “먼저 경제·문화·관광 등 각 분야에서 광주의 역량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창조도시를 거창한 상징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사람과 그 사람이 만드는 콘텐츠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석웅 정책연구담당은 “누구나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향식 사고의 변화가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시정목표를 창조에 맞춘 민선 5기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관 주도’라는 비판도 있었다.

박미영 위원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관 주도로 이뤄진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등 일부 정책은 전혀 창조적이지 못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정대 조직관리담당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한 현실에서 어느 정도

의 ‘관 주도’는 불가피하는 주장을 폈다. 그는 “아외음악당에서 각종 이벤트를 하고 있지만 참여하는 시민의 20여 명에 불과할 정도”라며 “좋은 정책이나 사업을 하려고 할 때마다 시민의 참여가 절실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재철 연구위원은 그동안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의견수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역 내 토론이나 학습, 워크숍 등이 부족하고, 단계별 참여 전략 등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참여나 소통에는 실천이 중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장 아래 단계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관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환 가전산업담당도 “아주 어릴 때부터 경험이나 학습이 밑바탕이 돼야 창조도시도 가능할 것”이라고 거듭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창조도시를 공직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변의 좋은 변화를 유도하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된 것을 하나씩 바꿔내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 도시”로 정의하기도 했다.

그는 “먼저 경제·문화·관광 등 각 분야에서 광주의 역량을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 창조도시를 거창한 상징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사람과 그 사람이 만드는 콘텐츠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석웅 정책연구담당은 “누구나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향식 사고의 변화가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시정목표를 창조에 맞춘 민선 5기가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관 주도’라는 비판도 있었다.

박미영 위원은 “물론 좋은 일이지만 관 주도로 이뤄진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등 일부 정책은 전혀 창조적이지 못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정대 조직관리담당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한 현실에서 어느 정도

6일간의 추억 여행 “마음껏 즐기세요”

15개국 문화예술공연·골목 문화제 등 다채로운 행사

광주를 대표하는 거리축제인 ‘제7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가 5일 오후 2시 옛 중앙교회에서 ‘추억의 시간여행’ 전시관 개관을 시작으로 6일간의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추억의 전시관’ 무대에 올라온 추억의 번사극(이수일과 심순애)은 심순애를 재기 발랄한 신여성으로 재해석, 해학과 풍자로 관객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전시관에는 70년대 옛 집과 골목이 그대로 재현됐으며, 손때 묻은 전화기와 선데이 서울 등이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퍼레이드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150여개 문화·예술 단체 8000여 명이 참가,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추억의 카니발’이란 주제로 펼쳐진 퍼레이드에는 임진왜란 당시의 병 모습부터 70년대 교복 행렬, 중국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퍼레이드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150여개 문화·예술 단체 8000여 명이 참가,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추억의 카니발’이란 주제로 펼쳐진 퍼레이드에는 임진왜란 당시의 병 모습부터 70년대 교복 행렬, 중국 전시돼 눈길을 끌었다.

또다른 볼거리다. 거리 각 골목길에서는 아코디언 연주나 보컬그룹 공연 등 7개 장르 20개팀이 무대나 조형물이 돋자리를 펴고 공연하는 이색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네팔, 베트남 등 15개국에서 참여하는 아시아문화예술공연도 광주주예술단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포함돼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축제 기간 금남로와 총장로 골목 곳곳에서 펼쳐지는 골목길 문화제도

또 1020세대를 위한 ‘총장 DJ 댄스 페스티벌’과 ‘총장로 야(夜)한 밤’(5~10일) 행사도 펼쳐지며 10일까지 특설무대에서 휘성, 제국의 아이들 등 유명 가수들의 콘서트와 축하 쇼가 열린다.

이날 열린 개막식과 퍼레이드 등에는 유대명 동구청장 등 전국 시·군·구 단체장 50여명과 1만여명의 관람객이 모여 축제 열기를 더했다.

총장축제 미숙한 진행

광주 대표 거리축제인 ‘추억의 7080 총장축제’가 5일 개막했다. 축제가 올해로 7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과도한 교통통제와 행사장 일대 상권 위축 등 축제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축제 이틀 전부터 교통 ‘전면’ 통제=동구는 행사진행에 위해 축제 이틀 전인 지난 3일 새벽 0시부터 전일 발당~금남공원 앞 구간 양방향 교통을 전면통제했다. 이는 11일 새벽 5시까지 해제된다. 지난해에는 무대 설치 위해 일부 구간만 통제했다.

인근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박모(65)씨는 “교통통제 기간 일대 주차장은 운영을 전혀 못하는 실정인데, 보상조차 없다”며 “올해는 이틀이나 먼저 전면통제돼 손해가 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교통통제 구간 및 시간에 대한

개막 이틀전부터 교통통제 시민들 불편
식당의 금남지하상가 등 상권 매출 뚝

안내는 지난 1일에서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제 첫날인 3일, 시내버스가 돌아간다는 공지를 뒤늦게 본 시민들은 버스정류장에 한참을 서 있다 돌아간 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왜 축제 이틀 전부터 미리 통제하는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회비 엇갈리는 지상 상권=역사가 오래된 일부 식당 등은 매출이 증가했으나 그 외 총장로 상권의 대다수는 운영을 전혀 못하는 실정인데, 보상조차 없다”며 “올해는 이틀이나 먼저 전면통제돼 손해가 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개업한 지 20년 이상 지나 ‘7080’ 세대들에게 익숙한 식당은 평소와 비

부분의 시민들이 지상 도로를 통행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매출이 감소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매번 5·18 기간과 총장축제 기간 등에도 교통통제로 인해 매출이 30~40% 가량 줄어 들었지만 이에 대한 보상 등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금남지하상가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47)씨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형편인데, 통제 첫날부터 하루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다”며 “축제를 주관하는 동구청이 보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무너지는 지하 상권=금남 지하상가 상인들은 차림이 통제되면서 대

쫄마렐라 열차 타고

총장축제 구경하세요

코레일 광주분부는 오는 9일 제7회 추억의 7080 총장축제에 따라 추억 여행을 떠나는 ‘쫄마렐라’ 이벤트 관광열차를 운행한다.

이번 열차는 서울 용산역에서 오전 7시27분 출발해 광주역에 도착, 담양 메타세쿼이아·죽녹원·관방제림을 둘러보고 광주시 동구 총장로·금남로 일대에서 열리는 다양한 총장축제를 즐긴 뒤 밤 11시경 용산역에 도착한다. 왕복 운임요금은 2만9000원(연계 버스비·점심식사비 포함)이다.

주말과 휴일(9일~10일)에는 총장 축제와 KTX를 연계한 당일 기차여행도 운영한다. 4만9000원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062-525-4835.

**10월 23일
단 하루!**

무안에서 출발하는 **참좋은 푸켓여행**

참좋은여행
1588-7557
광주대리점 062)515-7600

<p>★첫 번째 상품 실속 푸켓 3박4일 ₩499,000</p> <p>포 함: 일급리조트,아로마스파90분,코끼리트래킹,피피섬&광아만 특식4회 불포함:유류할증료 7만원, 기사/가이드팁</p>	<p>★두 번째 상품 품격 푸켓 3박4일 ₩649,000</p> <p>포 함: 특급리조트,아로마스파90분,코끼리트래킹, 피피섬&광아만 특식4회, 전통안마(1시간) 불포함:유류할증료 7만원, 기사/가이드팁</p>	<p>★세 번째 상품 초특급 푸켓 3박4일 ₩1,110,000</p> <p>포 함: 초특급 카오락 JW메리엇리조트,리조트내식사,미니바제공,전일정차유 불포함:유류할증료 7만원, 기사/가이드팁</p>	<p>★네 번째 상품 푸켓 골프 3박4일 ₩1,070,000 (연급) ₩1,110,000 (특급)</p> <p>포 함:리조트,아로마스파90분,피동,아시아관광,그린피,캐디,특식4회 불포함:전동카(1인1카 600바트), 캐디팁(1인 18홀 350바트),클럽하우스 중식(약 10\$), 기사/가이드팁</p>
--	--	--	---

*당시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주관:참좋은레저(주)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21-1 MIES빌딩 11층 TEL:02)2188-4000 /FAX:02)599-3111 ·문화관광부 등록 일반여행업 685호 ·여행블랜처리센터:1588-8692
·교통편:항공 및 전경버스/전지역 ·추가 경비 없음(단, 개인적인 팁, 선택관광 별도) ·공동여행조건:여행경비 1인기준(공방세 포함/전 일정 1급/ 식사포함, 최소 출발인원:2명~. 영업보증보험 5억가입, 여행자보험